

하회마을의 주택 배치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ite Planning of the Dwellings in Hahoe Village

정 명 섭* 혼마 히로부미** 호야노 아키라***
 Chung, Myung-sup, Honma, Hirobumi, Hoyano, Akira

황 정 하* 도 근 영**** 스가와라 마사노리*****
 Hwang, Jung-ha, Doe, Geun-yung, Sugawara, Masanor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osure and direction in slope as well as entrance of site in order to research the site planning of the dwellings in Hahoe Village. In this study, the survey data during seventeen month from April 1998 to August 1999 was measured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rate of exposure and direction in slope as well as entrance of site was find out in order of the south(30~38%) · east(22~28%) · north(21~24%) · west(14~22%) aspect. Among others, exposure was most due south · southeast · southwest aspect. 2) The interrelation of exposure and direction in slope as well as entrance of site was find out high within the limits of general visible.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순응하여 우리 생활과 풍토에 부합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환경친화적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과 주택들의 입지 선정 및 배치는 무엇보다 땅에 관한 자연의 이치를 다룬 풍수를 상당히 중요시했다. 마을 터와 집 자리를 찾고 살피는 풍수의 방법¹⁾ 중에서 좌향론은 방위와 관련된 이론으로 건축물을 배치하는 기준이 된다. 좌향이란 주택의 주된 건물이 정면

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을 말한다. 이는 풍수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일조·일사효과·지역의 계절풍·시계·향 등이 고려되어 정해진다. 이 때 대지의 입지 조건은 자연에 순응하는 풍수의 원리에 따라 집의 좌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적인 정주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흔치 않다. 이 연구의 대상인 하회 마을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몇 개 마을²⁾ 중의 하나로 그 고유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회는 또한 풍수 지리적으로 4대 길지에 꼽힐 뿐 아니라 마을 터에 집들이 네 방위를 취한 보기 드문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독특성을 지닌 하회의 정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이 풍수 등

* 정회원, 상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日本放送大學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東京工業大學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공학박사

***** 정회원, 札幌高等專門學校 강사, 공학박사

과 같은 이론적 고찰에 머물고 있다. 특히 좌향과 관련한 여러 요소 중 풍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그 원리로 삼은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실증적 조사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³⁾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하회 마을

주택의 좌향이 지형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의 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하회의 주택 배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 내용을 실제 확인하기 위해 집중 탐구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기록 정리해 두는 데

표 1. 하회마을 주택의 좌향,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 조사표

NO	소유자	좌향	대지경사 방향	대지출입구 방향	NO	소유자	좌향	대지경사 방향	대지출입구 방향
1	박정숙	30(북북동)	185(남)	30(북북동)	59	류시창	290(서북서)	293(서북서)	360(북)
2	류영하	50(북북동)	20(북북동)	310(서북서)	60	류세하	260(서)	280(서)	320(북북서)
3	류제하	20(북북동)	30(북북동)	20(북북동)	61	류석하	170(남)	240(서남서)	110(동남동)
4	류시중	30(북북동)	50(동북동)	50(동북동)	62	류영수	190(남)	210(남남서)	180(남)
5	류영하	20(북북동)	350(북)	20(북북동)	63	류시중	220(남남서)	180(남)	180(남)
6	류봉식	110(동남동)	80(동)	40(북북동)	64	류시중	250(서남서)	120(동남동)	110(동남동)
7	장기인	360(북)	310(서북서)	260(서)	65	류시진	220(남남서)	240(서남서)	240(서남서)
8	류영하	190(남)	130(동남동)	190(남)	66	류윤하	230(서남서)	150(남남동)	200(남남서)
9	류시욱	290(서북서)	90(동)	250(서남서)	67	류민하	160(남남동)	100(동)	170(남)
10	류영하	200(남남서)	170(남)	140(남남동)	68	류재영	100(동남동)	80(동)	40(북북동)
11	장주광	120(동남동)	340(북북서)	200(남남서)	69	류시국	100(동)	80(동)	80(동)
12	장사태	170(남)	140(남남동)	260(서)	70	류시문	170(남)	163(남남동)	80(동)
13	김대복	170(남)	150(남남동)	200(남남서)	71	류태기	170(남)	160(남남동)	180(남)
14	류동진	110(동남동)	125(동남동)	80(동)	72	류태기	190(남)	160(남남동)	240(서남서)
15	류동진	110(동남동)	80(동)	340(북북서)	73	류태기	170(남)	160(남남동)	240(서남서)
16	류석호	180(남)	120(동남동)	160(남남동)	74	류태하(남촌태)	180(남)	130(동남동)	145(남남동)
17	류원식	360(북)	70(동북동)	180(남)	75	류상원	180(남)	85(동)	15(북)
18	최도석	100(동)	115(동남동)	180(남)	76	류시탈	170(남)	170(남)	190(남)
19	류성태	180(남)	70(동북동)	160(남남동)	77	류시연	260(서)	195(남)	250(서남서)
20	류시수	20(북북동)	350(북)	350(북)	78	류무하	360(북)	200(남남서)	250(서남서)
21	류동준	110(동남동)	20(북북동)	20(북북동)	79	류시천	80(동)	5(북)	335(북북서)
22	류영하(북촌태)	80(동)	70(동북동)	80(동)	80	류한욱	10(북)	40(북북동)	70(동북동)
23	류돈우	100(동)	100(동)	100(동)	81	류교우	250(서남서)	216(남남서)	280(서)
24	류운하	180(남)	160(남남동)	150(남남동)	82	정규인	230(서남서)	205(남남서)	230(서남서)
25	류한영	110(동남동)	170(남)	190(남)	83	류시호	120(동남동)	70(북북동)	80(동)
26	류시순	170(남)	113(동남동)	170(남)	84	류명하	230(서남서)	200(남남서)	190(남)
27	류홍준	140(남남동)	20(북북동)	140(남남동)	85	강정구	220(남남서)	260(서)	190(남)
28	류복식	120(동남동)	70(동북동)	120(동남동)	86	류시달	140(남남동)	135(동남동)	80(동)
29	류환우	180(남)	190(남)	160(남남동)	87	류진하	210(남남서)	180(남)	170(남)
30	류시만(양진달)	190(남)	170(남)	170(남)	88	강하봉	230(서남서)	220(남남서)	170(남)
31	류시주	140(남남동)	120(동남동)	60(동북동)	89	류시국	110(동남동)	210(남남서)	20(북북동)
32	류기달	170(남)	140(남남동)	150(남남동)	90	양순천	190(남)	80(동)	320(북북서)
33	류영숙	180(남)	150(남남동)	160(남남동)	91	류유하	20(북북동)	30(북북동)	80(동)
34	류시보	200(남남서)	125(동남동)	170(남)	92	류시돈	140(남남동)	40(북북동)	80(동)
35	류대하	200(남남서)	160(남남동)	250(서남서)	93	류대우	90(동)	60(동북동)	80(동)
36	류선우	180(남)	180(남)	60(동북동)	94	류시정	20(북북동)	350(북)	10(북)
37	류석하	200(남남서)	160(남남동)	210(남남서)	95	류일하	50(동북동)	320(북북서)	50(동북동)
38	류담우	130(동남동)	240(서남서)	240(서남서)	96	류도중	260(서)	320(북북서)	240(서남서)
39	류시영	220(남남서)	200(남남서)	110(동남동)	97	류장현	280(서)	215(남남서)	190(남)
40	류시훈	200(남남서)	170(남)	130(동남동)	98	이규성	290(서북서)	280(서)	240(서남서)
41	류원하	290(서북서)	205(남남서)	190(남)	99	류시훈	280(서)	280(서)	260(서)
42	류시훈	260(서)	230(서남서)	230(서남서)	100	류시화	200(남남서)	235(서남서)	270(서)
43	류한상	10(북)	350(북)	350(북)	101	류시덕	280(서)	250(서남서)	240(서남서)
44	류동원	10(북)	340(북북서)	10(북)	102	류시환	160(남남동)	100(동)	140(남남동)
45	류시관	110(동남동)	80(동)	80(동)	103	류송한	10(북)	153(남남동)	110(동남동)
46	류수창	10(북)	205(남남서)	90(동)	104	류시광	10(북)	350(북)	20(북북동)
47	경분선	90(동)	60(동북동)	100(동)	105	류명순	10(북)	310(서북서)	290(서북서)
48	류영하	40(북북동)	20(북북동)	30(북북동)	106	류일하	180(남)	340(북북서)	280(서)
49	류원복	200(남남서)	210(남남서)	150(남남동)	107	류충하	10(북)	340(북북서)	90(동)
50	류걸하	200(남남서)	170(남)	210(남남서)	108	류시득	350(북)	320(북북서)	360(북)
51	류시진	230(서남서)	130(동남동)	280(서)	109	류시득	20(북북동)	270(서)	360(북)
52	류시진	230(서남서)	200(남남서)	280(서)	110	류강하	90(동)	70(동북동)	90(동)
53	류시영(홍효달)	260(서)	240(서남서)	240(서남서)	111	류순영	100(동)	70(동북동)	70(동북동)
54	류대진	250(서남서)	290(서북서)	230(서남서)	112	김중태	100(동)	205(남남서)	340(북북서)
55	류한준	140(남남동)	20(북북동)	330(북북서)	113	류시강	40(북북동)	330(북북서)	330(북북서)
56	류성하	360(북)	350(북)	330(북북서)	114	윤이혁	60(동북동)	345(북)	320(북북서)
57	류한성	170(남)	220(남남서)	90(동)	115	류시하(하동고택)	10(북)	350(북)	350(북)
58	류한성(주일계)	230(서남서)	190(남)	140(남남동)	계 115가구				

에도 연구 의의를 두었다.

2. 연구 및 조사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하회 마을의 각 주택들이 취하고 있는 대지 조건을 현지 조사하여 주거의 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주택의 정위는 일반적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풍수와 대지의 경사 및 대지 출입구 방향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설정된다. 이들 중에서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형에 따른 대지의 경사와 출입구 방향을 실측조사하고 이를 좌향과 상호 비교 고찰했다. 현재 이 마을에 소재 한 115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소유자·주소·건립연대 등을 새로이 조사 정리⁴⁾하고 이들에 대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현장 조사는 관찰·실측·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비와 본 조사로 나누어 각기 두 차례⁵⁾에 걸쳐 실시하였다.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은 전자레벨(NL-300E), 나침반, 줄자 등을 이용했다. 좌향은 안대칭에서 측정하고 이 안대칭에서 다시 대지의 경사와 출입구의 방위를 살펴보았다. 대지의 경사는 경사 정도를 전자레벨 센서로 실측하여 확인한 후 주된 경사지를 그 방향으로 삼았으며, 출입구는 대지와 접하는 마을도로와 이 도로에서 끌어들이는 골목길에서의 입구를 그 방향으로 잡았다. 나침반으로 측정한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방위각)은 먼저 천공방위(동서남북)를 4등분으로 크게 분류하여 고찰하고 이를 다시 12등분으로 세분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 하회 마을의 풍수

하회 마을은 해발 90m 이하 표고의 강슁에 있는 背山臨水の 집촌이다. 동쪽으로 태백산의 지맥인 해발 271m의 화산이 있고 이 줄기의 끝이 마을 안까지 뻗쳐 마을의 지형은 손등처럼

생긴 비교적 낮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남으로는 낙동강의 원류인 화천을 사이에 두고 영양 日月山의 지맥인 南山이 있는데, 마을에서 300m 가량 거리에 있는 主峰을 마을의 사람들은 晚隱峰이라 부르고 있다. 서쪽도 역시 화천을 넘어서 日月山의 지맥인 遠志山이 있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花川 건너편에 부용대의 암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 부용대에는 풍산 류씨의 큰 자랑인 겸암과 서애 두 형제가 남긴 화천서당·겸암정사·옥연정사·상봉정 등의 건물이 산재하고 부용대 밑에는 형제암과 능파대 등의 바위들과 그에 관한 전설이 옛날의 호사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마을과 서남북에 있는 산들의 사이를 화천이 200~300m의 폭과 2~5m의 수심을 가지고 흐르는데, 동에서 서로 흘러오다가 다시 동으로 역류하였다가 서쪽으로 구비쳐 흘러 동류수·서류수의 별명을 얻고 있다. 이런 하회 마을의 지형은 물길의 S자(太極)모양을 취한 山太極, 水太極의 太極形 형국을 이루고 있으며, 물위에 연꽃이 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연화부수형 또는 배 떠나는 모습이라 하여 행주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국은 모두 산세의 지맥과 물길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하회의 형국을 보면 日月山의 지맥인 花山이 主山으로서 玄武에 해당되며, 南山과 낙동강의 본류인 花川이 左靑龍이 되고 북쪽 부용대가 右白虎에 해당된다. 화천 건너 서쪽에 있는 遠志山이 마을의 案山 격인 朱雀에 해당된다. 遠志山 뒤에는 높은 만은봉이 솟아 있다. 태백산의 맥을 이은 일월산의 지맥이 화산까지 이어졌으며 화산의 줄기가 忠孝堂 뒤뜰에 이르고 그것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다시 솟아서 응결한 곳이 三神堂과 養眞堂의 자리라고 한다. 따라서 태백산의 지맥이 응결한 곳이 하회의 중심지가 되며 혈의 자리에 三神堂이 位置하고 있다. 하회의 북서쪽은 산이 낮아 몰려오는 북서풍으로 마을의 地氣를 흩어 버릴 염려가 있어 이른바 ‘虛’한 곳이다. 따라서

이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하여 裨補 숲으로 晚松亭을 조성했다고 한다. 만송정은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화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과 방수림의 구실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백산 줄기의 화산에서 내려오는 정기가 혈에 모일 수 있도록 거의 흐름을 막아 주는 상징적 기능도 하고 있다. 하회의 남서쪽에는 강에 접한 느티나무 숲이 있는데 이 역시 풍수상의 허한 곳을 보완해 주고 바람과 홍수로부터 강가의 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회마을 지형의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거북 등처럼 가운데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지막하다. 마을의 길도 삼신당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하회 마을은 산의 경우 위치적으로나 방위 및 環抱性에서 볼 때 배산의 의미가 다소 약한 반면 環抱性⁶⁾인 수류가 산이 결한 부분을 물이 대신하고 있는 등 득수국의 조건에 합치되고 있다. 따라서 하회는 풍수지리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마을로 예로부터 4대 길지 중의 하나로 꼽혀 왔다.

III.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 고찰

1.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의 분포

각 주택의 주된 건물인 안채의 안대청에서 측정한 좌향은 남향 44가구(38%), 동향 25가구(22%), 북향 24가구(21%), 서향 22가구(19%) 순

으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남·동남·서남향을 으뜸가는 향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가장 많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는 좌향이었고 陽明을 숭상하는 태고적 습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남향에 관한 사항은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전가보』에서도 “人家의 房屋은 남향이 가장 좋고 동향이 그 다음으로 좋으며, 북향이 또 그 다음으로 좋다. 그런데 절대로 서향으로 지어서는 안된다. 그 까닭은 서쪽 방향으로 문을 향하게 하면 이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건물의 방향을 살펴보면 정남향은 거의 없다. 이는 당시에 좌향을 보던 패철에서는 子坐午向과 같이 패철의 면에서 좌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까닭이다. 하회 마을도 남향 중에서 정남향을 취한 주택은 10개소로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금기시해온 서향 중에서 북서방향(300° ~340°)으로 앉은 주된 건물이 하나도 없음이 주목된다. 북서방향은 만송정의 솔밭 쪽으로 하회의 겨울철 풍향이 주로 북서풍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회 마을은 이런 전통적 주된 건물 방향 설정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안대청에서 바라본 대지의 경사 방향은 동향 32가구(28%), 서향 16가구(14%), 남향 41가구(36%), 북향 26가구(22%)로 주된 건물의 좌향과 같이 남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집터의 기본은 뒤가 높고 앞은 낮아야 한다. 거북 등같은 마을의 터에 골고루 집을 짓게 되

표 2.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 분포도

구분	방향	동향	서향	남향	북향	계
		45° ~135°	225° ~315°	135° ~225°	315° ~45°	
좌향	가구수	25(22%)	22(19%)	44(38%)	24(21%)	115(100%)
대지의 경사방향	가구수	32(28%)	16(14%)	41(36%)	26(22%)	115(100%)
대지의 출입구방향	가구수	28(24%)	25(22%)	35(30%)	27(24%)	1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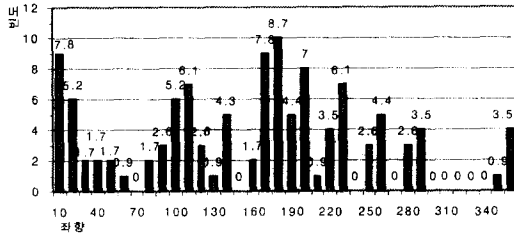


그림 1. 좌향의 빈도

면 자연히 마을 터의 중심을 등지고 가장자리를 향하게되어 前低後高의 기본적 형태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대지의 경사 방향은 집터의 규범적 모습을 지켜가면서 네 방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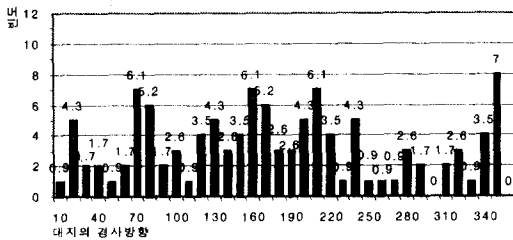


그림 2. 대지의 경사 방향 빈도

또한 마을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방향도 동향 28가구(24%), 서향 25가구(22%), 남향 35가구(30%), 북향 27가구(24%)로 이 역시 남향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지의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마을내의 도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회의 도로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양진당 너머 강둑까지 가로지른 동서대로가 주요도로이다. 동서대로에서 방사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있고 이 방사상 도로의 주요 분점에서 다시 갈라지는 도로와 이 도로들을 잇는 길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미줄처럼 형성된 하회의 도로망은 대부분의 주택 대지에 면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일부 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를 대지까지 끌어들이는 인입형 도로⁷⁾를 내었다. 따라서 대지의 출입구 방향이 주택의 방향과 마을 터의 형국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

된 도로와 연계되어 각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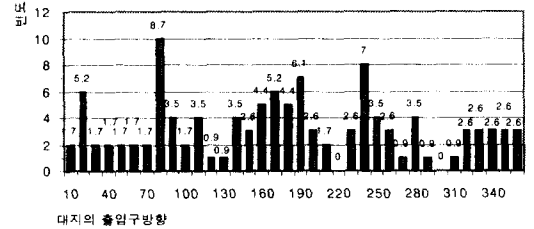


그림 3. 대지의 출입구 방향 빈도

2.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의 상관관계

앞서 살펴본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해보았다. 상관관계는 안대청에서 건물을 등지고 앉은 자세로 바라볼 때 주시력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20° 이내와 이를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 시계각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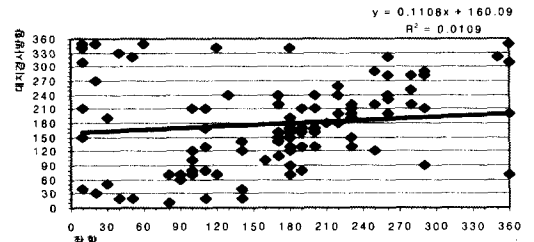


그림 4. 좌향과 대지경사방향의 상관관계

려하여 40° 이내의 두 범위를 잡아 살펴 보았다. 또한 마을 지형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할 뿐 아니라 대부분 안채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30M의 일반적인 가시거리 내에 있음을 고려하여 그 가시각을 90° 로 넓게잡은 상관관계도 함께 고찰해보았다.

좌향과 대지 경사방향의 상관관계는 그림 4와 같이 20° 이내는 36가구(31%), 40° 이내는 69가구(60%)가 나타났다. 20° 이내에서는 분포가 1/3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40° 이내에서는 꽤 높은 비율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관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들은 대부분 안채에서 바라본 시계각 90° 이내에 분포(84%) 되어 있으며, 좌향과 대지의 주된 경사방향이 180°로 달리하는 전저후저의 역지에 건물을 앉힌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전저후고의 기본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연 지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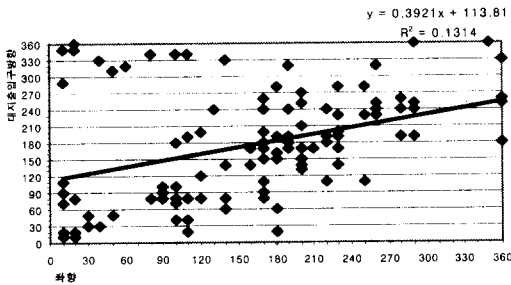


그림 5. 좌향과 대지 출입구방향의 상관관계

그림 5에서처럼 좌향과 대지 출입구방향의 상관관계는 20° 이내는 43가구(37%), 40° 이내는 61가구(53%)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일치 분포가 앞의 좌향과 대지 경사방향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주택의 전면도로와 인입도로에서 곧장 대지로 이어지는 대지의 출입구 방향도 거의 대부분(84%) 안채에서 바라본 시계각 90° 이내에서 집의 정면 또는 좌측면에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류원식가옥(NO.17)만이 집의 배면쪽에 대지의 출입구가 나있음이 주목되는데, 이는 대지의 경사에 따라 전저후고로 집을 앉히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한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대지의 출입구는 모두 서로 약간씩 빗겨나 있다.

대지의 경사와 출입구방향의 상관관계는 20° 이내는 38가구(33%), 40° 이내는 58가구(50%)로 앞의 두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안채에서 바라본 이 두 방향도 역시 86% 정도가 시계각 90° 범위 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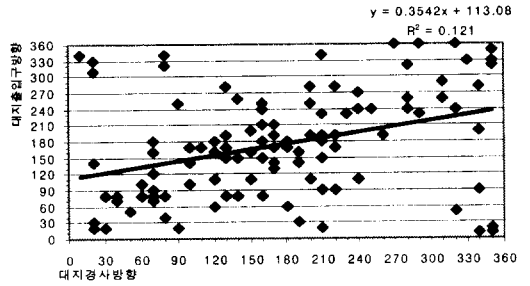


그림 6. 대지의 경사와 출입구방향의 상관관계

따라서 전저후고를 이룬 대지 경사와 지세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 쪽의 출입구는 마을의 지형에 순응한 모습이라 하겠다.

이상의 좌향·대지의 경사방향·대지의 출입구방향의 상관관계에서 얻어진 20° 이내의 31~37%와 40° 이내의 50~60%의 비율은 결코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채에서 바라보이는 가시 범위 각도를 90°로 잡았을 때는 약85% 정도로 상당한 상호관련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하회마을 주택의 배치 분석

하회마을의 주택들은 앞의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 모두가 남·동·북·서남순으로의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집안 사람 마음의 중심상이며 보논이의 심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좌향은 우리 조상들이 으뜸 향으로 여겨온 정남향(10개소)·동남향(33개소)·서남향(33개소)이 전체 가구수의 약6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네 방향으로 경사진 마을 지형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가장 양명한 쪽을 택하여 주택을 배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한편 북향과 서향을 취한 주택들은 남쪽 벽면에 채광을 위한 비교적 큰 창호를 시설하는 등으로 불리해진 주거환경 조건을 보완해주고 있다.⁸⁾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의 상관관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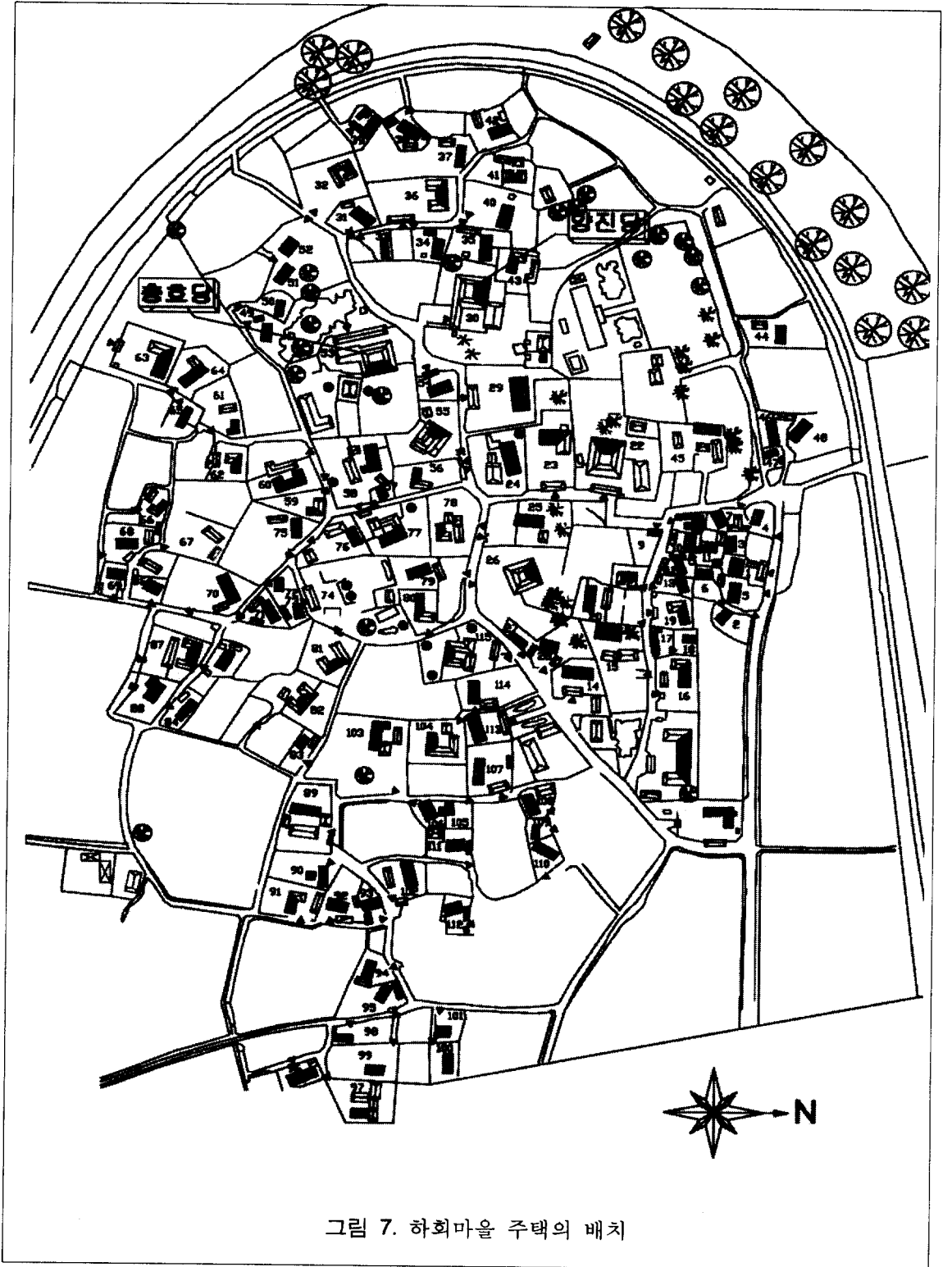


그림 7. 하회마을 주택의 배치

20° 이내 31~37%, 40° 이내 50~60%, 90° 이내 84~8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시 범위 시각 내에서의 상호관계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 가시 범위 내에서는 그 상관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하회마을의 주택들이 입지 조건에 따른 대지의 오르내림과 드나듬에 있어서 인간의 세속적 생태 행위에 거슬림이 없도록 배치했음을 읽게 한다.

집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자연환경으로서 좌향을 살펴봄과 인문환경으로서 다른 집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대개 대지 경사는 자연환경 요소로 좌향의 일차적인 결정 요인이 되고 전면 도로와 관련 있는 대지의 출입구는 부차적인 요인 된다. 하회 마을은 이런 보편적 원리를 준수하면서 특유의 지형에 맞추어서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겠다. 인문환경적으로는 두 종가가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아 있고, 모든 주택들은 서로 이웃한 집들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모두가 빗겨 자리잡고 있다. 류씨를 제외한 타성의 집들은 모두 남촌택·하동고택·북촌택으로 이어지는 원호 바깥쪽 동편 마을 진입부에 배치되어 있다.⁹⁾ 동편은 풍수적으로 득수국 지형에서 종가가 있는 중국점 주위보다 다소 불리한 곳으로 이 또한 인문환경적 질서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타성의 서민주택들은 형이상학적 풍수원리에 따른 양반 주택과는 달리 집의 축조를 추길 피하기를 추구하는 구복적 방법론으로 여기고 민간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수의 적용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회 마을의 주택배치는 풍수원리와 유교적 종족 질서 등에 준거하면서 독특한 지형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하회 마을의 터는 득수국 명당으로 모든 주택

들이 일반적 동쪽마을과는 달리 주산을 멀리 두고 강가의 얇은 구릉지에 모여 있다. 손등처럼 생긴 구릉지의 중앙 능선을 등으로써 주택들이 동서남북의 모든 좌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하회마을을 주택의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들의 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은 모두 남(30~38%)·동(22~28%)·북(21~24%)·서(14~22%)향순으로의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좌향은 옛부터 으뜸 향으로 여겨온 정남향(10개소)·동남향(33개소)·서남향(33개소)이 6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을 터의 중심을 등지고 각 방향으로 흘러내린 특유의 지형에서도 가능한 양명한 곳에 집을 앉히고자 했음을 엿 볼 수 있다.

2) 좌향과 대지의 경사 및 출입구 방향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20° 이내 31~37%, 40° 이내 50~60%, 90° 이내 84~86%의 비율을 통해서 주시 범위 시각 내에서의 상호관계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 가시 범위 내에서는 그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을 배치할 때 살펴보는 좌향과 이를 결정하는데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대지의 경사와 부차적인 출입구 방향이 하회 마을 고유의 지형에 대체로 순응하고 있음을 읽게 한다.

3) 종가인 양진당과 충효당을 명당의 가장 좋은 중국점에 앉히고, 모든 주택들을 전통적 관습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

타성씨의 주택들은 풍수적으로 득수국 지형에서 다소 불리한 곳인 동편 마을의 진입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하회 마을의 배치 형태는 풍산 류씨가 입향한 15C부터 풍수원리와 유교적 종족 질서에 준거하면서 독특한 지형에 순응하고자한

각종 환경 행태에 의해 형성된 생태적 질서를 갖춘 보기드문 모습이라 생각된다.

· 이 연구는 일본의 平成10年度 文部省科研費 (國際學術研究 과제번호 10041139, 대표 梅干野 晁)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둔다.

주

- 1)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血法, 坐向論, 形局論을 들 수 있음.
- 2)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제주도 성읍마을, 승주군 낙안 읍성마을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3)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본 “장영우 외 하회마을에서 계층을 통해 나타난 주택의 공간위계성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권 2호, 1999, 10)”와 “장동국 외, 공간구문모델에 의한 한국 전통마을 공간구조분석(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호, 2000, 1)”이 있으며, 풍수론적으로 다룬 “이용희, 물의 풍수론적 시각에서 본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해석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학회지 10권 2호, 1995, 5)”가 있는 정도이다.
- 4) 마을 관리 사무소에 정리된 자료와 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애의 대손 류시주씨의 도움으로 정리했다.
- 5) 예비조사 : 1차(1998. 4. 29.~5. 7.), 2차(1998. 7. 26.~8. 9.)
본조사 : 1차(1999. 3. 25~4. 5), 2차(1999. 8. 7.~8. 18.)
- 6) 水가 穴場을 向해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水를 일컬어 활과 같다하여 弓形 또는 皇帝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玉帶를 상기시킨다고 해서 腰帶水라 稱하기도 한다.

- 7) 17개소 주택이 인입도로를 내었음(표 1의 NO: 6, 11, 18, 37, 38, 39, 46, 50, 51, 52, 66, 82, 97, 100, 104, 111)
- 8) 대표적인 예로 충효당(서향)과 하동고택(북향)을 들 수 있다.
- 9) 현재 타성의 주택은 15개소로 그림7의 1, 7, 11, 12, 13, 18, 28, 47, 82, 85, 88, 90, 98, 112, 114에 위치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임재해, 하회마을의 자연경관과 풍수지리의 이해, 안동문화연구 6집, 1992.
2. 이종필 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3. 물의 풍수론적 시각에서 본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 제2호, 1999.5.
4.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5. 문화재관리국, 안동 하회마을 보존 관리방안 조사연구보고서, 1988.
6. 이금도, 하회 양진당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7. 신영훈, 안동 하회마을, 열화당, 1981.
8.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9. 이용희, 양택론적 방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0.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